

해태, 전국 양돈농민들의

해
태
측

“향후 돼지고기 통조림 일체 수입 않겠다”
“양돈농민과 약속한 육가공 사업 기필코
추진하겠다”

취재 : 김동성 (본지 편집과장)

해태측이 마침내 전국의 양돈농민들이 전개한 불매운동에 굴복, 양돈농민들에게 그동안의 물의에 대해 사과(본지 목차뒤 참고)하고 양돈농민들의 요구조건을 대폭 수용키로 결정했다.

해태상사(주)는 지난 10월 15일과 24일 26일 각각 본회에 공문을 보내 「앞으로 폐사는 돼지고기 통조림 수입을 일체 하지 않겠다」, 「기수입된 통조림은 시판을 하지 않고 사원들에게 소비토록 하겠다」, 「앞으로 여건이 성숙되면 양돈농민과 기약속했던대로 육가공사업에 기필코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본지 등에 양돈농민 사과 광고 게재

이어 해태제과(주)는 이번



호의 본지와 주간양돈정보, 축산신보 등에 「전국 양돈농민들에게 드리는 사과문」을 게재, 「해태상사(주)가 수입한 덴마크산 튜립통조림으로 인해 전국양돈인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정식 사과하고, △

외국산 통조림 수입 중지 △ 육가공사업 참여 의지를 분명히 밝힌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전국의 「양돈농민들이 요구한 3개항중 일간지에 대농민 사과광고를 5단 크기 이상으로 게재하는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어 앞

상품불매운동에 두 손 들어



으로 그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같이 해태측이 대농민 사과를 하고 양돈농민들의 요구조건을 대폭 받아들인 이유는 전국 양돈인들의 단합된 의지와 능동적인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당초 양돈농민들이 해태제품 불매운동을 벌이게 된 동기는 해태상사(주)가 지난 7월 덴마크의 튜립 통조림을 수입해 온 것이 발단이 되었

다. 당시 해태상사(주)가 정부의 돈육통조림 수입자유화 조치(7월 1일부터 시행)에 따라 튜립 통조림 54톤을 수입해 왔던 것. 이에 전라남도 나주를 비롯한 전국의 양돈농민들은 양돈업계가 불황에 직면해 있는 마당에 돈벌이라면 무조건 뛰어드는 재벌의 기업윤리를 규탄하고 나섰다. 특히 전남 나주를 비롯한 인근 지역의 양돈농민들은 해태제과(주)

가 지난 83년 나주에 양돈장을 지을 때 육가공공장을 건립 하겠다고 당초의 약속을 어기고, 이제는 양돈농민의 생존권을 빼앗는 돈육통조림을 수입 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 본회 중앙회에 긴급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후 전국양돈인(대표: 전재명)들은 해태측에 대해 ① 해태측은 전남지역 양돈농민과의 약속대로 육가공공장을

건립하든지, 아니면 육가공공장 건립을 전제로 하여 건립한 양돈장을 폐쇄조치하든지 하여 대농민 약속을 분명히 이행할 것 ② 양돈농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점과 기업의 윤리를 저버린 행위에 대해서 각 일간지에 5단 크기의 대농민 사과문을 게재할 것 ③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당초의 대농민 약속을 완전 이행하기 전까지는 돈육통조림을 일체 수입·시판하지 말 것 등 3개항을 요구했다.

또한 이들은 이와같은 요구에 해태그룹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엔 전국적으로 해태상품 불매운동을 범국민운동으로 전개하는 한편, 농민권의 수호 및 우리나라의 양돈산업 보호를 위해 제2단계 행동을 개시하겠다고 경고했다.

전국 일원에 표어·전단 살포하고 프랑카드 부착

이에 대해 해태측의 응답이 없자 전국의 양돈인들은 대한양돈협회 중앙회와 산하 67개 시·군지부를 중심으로 지부 사무실과 인근지역 등 옥외에 프랑카드를 내걸고 불매운동에 들어갔다.

양돈농민들이 프랑카드에



적은 내용은 △ 농민을 기만한 해태상품 사지말자 △ 해태그룹은 양돈농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 △ 해태상품 불매하여 기업윤리 일깨우자 등이었으며, 이와같은 내용의 표어 수천장과 불매운동 전단 2종 수만장을 살포하기도. 특히, 울산·울주지역의 양돈인들은 30여개의 프랑카드를 제작, 울산·울주지부 사무실과 옥외 곳곳에 내붙이는 열성을 보이기도 했다.

이와함께 전국의 양돈인들은 지난 10월 24일 정부의 돈육통조림 수입 자유화 조치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돈육통조림 수입 자유화 대책건의서」를 작성, 전국의 양돈인 8천여명의 연명날인을 받아 대통령, 경제기획원장관,

상공부장관, 재무부장관, 보건사회부장관, 농림수산부장관 등에 제출했다.

이와같은 양돈인들의 움직임에 대해 해태측이 3개항의 요구조건중 2개항을 수락함으로써 일단 진정단계에 들어갔으나, 일간신문에 사과문을 게재하는 문제가 타결되지 않아 완전 매듭이 지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의 양돈농민들의 행동 통일은 농민의 생존권을 지켰다는 의미외에, 제2의 해태사(주)가 발생하는 것을 막는 효과도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돈벌이라면 무슨 일이나 뛰어드는 재벌들의 기업윤리를 일깨워줬다는 면에서 높게 평가될 것 같다.*